

I. 찬양(Praise):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Amazing Grace"

II. 기도(Prayer): "부모 중 한 분이 대표로"

III. 성경(Bible): "창 12:2(Genesis 12:2)"

IV. 말씀과 나눔(Sermon & Sharing)

"너는 복의 근원이라"

본문: 창세기 12장 2절

이산돌 목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국에서는 복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꼭 우리는 "Happy New Year"라는 표현보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인사를 합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에서도 이 복에 대하여 상당히 강조하고 민감해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의 문제점은 복이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만을 추구하며, 번영 신학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복이라는 것은 단지 물질의 복만이 최고이며 최선이라 생각하는 편식은 더 이상 우리를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팔 복을 가르쳐 주며 복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도 다양한 복이 있습니다. 이번 새해에는 구약에서 복의 종류를 찾아보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 창대함, 번영(창 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크' 그런데 우리는 창대케 되는 결과만을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복의 본질이 아닌데 말입니다. 물질적인 창대함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화를 입게 됩니다.

2. 행복 (신 10:13)

토브 아무리 물질이 창대해도 집안이 그 물질로 인하여 싸운다면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닙니다. 잠언 17:1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육선(제물), 돈으로 세상을 살기보다는

행복으로 세상을 누려야 하는 것이 귀한 복입니다.

3. 선함, 아름다움 (출애굽기 33:19)

'투브'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이쁜 것과는 다릅니다. 이쁜 것, 잘 생긴 것은 성형으로 충분히 만들수 있습니다. 성형을 한다고 해도 못고치는 것은 있습니다.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신 복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보려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인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선하고 아름다움이 가득차길 원합니다.

4. 바른 길, 정도 (잠언 23:19)

'데레크' 즉 정직을 말합니다. 정도로 걷는 것이 쉬울까요?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면 정도를 벗어나게하는 유혹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벌 수 있습니다 단지 적게 벌 뿐입니다. 많이 벌고자 하니 정도의 길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도의 길을 걸으면서 자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2024년 새해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복들을 생각하며 우리 가정에 이러한 복이 넘치길 소망하며 한 해를 맞이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및 나눔

- 2023년을 돌아보면 서로 감사한 일들을 나누어 보기 바랍니다.
- 오늘 나눔 복들 중에 바라는 복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보기 바랍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Text: Genesis 12:2

Pastor Sandol Lee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In Korea, there's a significant sensitivity towards blessings. So, when a new year comes, we often say,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May you receive many blessings in the new year)" rather than just say "Happy New Year." Therefore, Korean churches emphasize and are sensitive about these blessings. However, a critical issue in Korean churches is the pursuit of material,

children, and health blessings, solely focusing on “prosperity theology”. Many desires such blessings, which isn't wrong. God desires our well-being and grants blessings to us. But limiting blessings only to material wealth isn't what makes us faithful believers anymore. In the New Testament, Jesus taught about beatitudes. Yet, in the Old Testament, various blessings are mentioned. This New Year, let's explore the types of blessings in the Old Testament and share grace with each other.

1. Greatness and Prosperity (Genesis 12:2)

God said, "And I will make of you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so that you will be a blessing." However, we often think only about becoming great. That, in itself, isn't the essence of blessing. If we make material greatness our sole aim, it might lead us to trouble, not God's blessings.

2. Happiness (Deuteronomy 10:13)

No matter how prosperous one is, if there's conflict at home due to that wealth, it isn't a genuine blessing. Proverbs 17:1 says, "Better is a dry morsel with quiet than a house full of feasting with strife." It's more valuable to enjoy the world with happiness rather than buying the world with material wealth.

3. Kindness, Beauty (Exodus 33:19)

'Tov' - Being kind and beautiful isn't just about outward appearance. External beauty can be attained through cosmetic surgery, but there are things that can't be fixed. Making a kind and beautiful face isn't in our hands; it's a blessing given by God. To see if we truly live that way, we should observe if the people around us are kind and beautiful. May your faces be filled with kindness and beauty.

4. Righteousness, Integrity (Proverbs 23:19)

'Derek' means integrity. Is it easy to walk in integrity? Doing business or having a job might tempt us to stray from integrity. You can earn without compromising, but maybe not as much. Striving for more might make us forsake the path of integrity. The blessed person is the one who lives contentedly while walking the path of integrity.

As we enter 2024, let's reflect on these valuable blessings mentioned by the Lord and aspire for their abundant presence in our homes. May the Lord's blessings enrich our families and community throughout this year. I pray for this in the name of the Lord.

Application & Sharing

1. As we reflect on 2023, let's share things we are thankful for.
2. If there's a blessing you desire among the ones shared today, let's share it with each other.



신년 가정예배

New Year Family Worship

“새해 첫 날,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임마누엘장로교회 가정예배팀